

Open Doors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월간 소식지

VOL.280 | 2025 AUGUST | 08월

비밀 신자들

이라크에서의
야신의 두려움 없는 믿음



카톡에서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채널을 추가하세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 사도행전 4:29 -

칼럼

- 이란교회의 부흥과 박해

비밀신자 이야기

- 두려움 없는 믿음을 지원해주세요
- 새로운 희망의 끈
- 비밀신자를 위한 기도

박해와 선교현장 - 이라크

Heart To Heart

- 오픈도어 기도학교 2025
- IDOP (국제기도의 날)
- 어린이 박해지도 세미나 후기
- 희망의 선물

부록

-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기도월력

한국오픈도어를 섬기는 사람들

2025년 08월호 | 통권 280호 |

등록번호-증량, 라00042

공동대표 : 김성태 교수(국제관계), 신현필 목사(개발사역)

이사장 : 김성태 교수

부이사장 : 김영복 목사

이사회 : 서창원, 노창영, 김영우, 최홍규, 이동현,

배춘섭, 윤상덕, 이바울, 김택호 이사

사무총장 : 김경복 선교사

개발/행정/재정/홍보/정보 : 문민환, 조남준, 임훈희, 김다운
민태홍 간사

북한선교 : 이제나, 이다니엘, 윤수지, 안요한, 김안나,

한아론, 장요셉, 한로이 간사

발행처 :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153 서울시 중랑구 봉우재로 133, 화성빌딩 2층

전화: (02) 596-3171 팩스: (02) 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

카카오톡 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편집 및 디자인 : 김셋별

오픈도어 핵심가치



-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다
- 우리는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긴다
- 우리는 성경의 사람이다
-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다
- 우리는 믿음으로 살며 사역한다
-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지상명령에 헌신한다
-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한다

후원하기

<후원신청>

한국오픈도어선교회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후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후원과 일시

후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

은 홈페이지의 '후원하기'를 이용해 주세요. 또는

소식지 가장 뒷면에 있는 CMS 정기후원 양식을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 홈페이지를 통해 후원하기를 신청하시면 '기부금영수증'은 자동발급 됩니다.



<계좌이체>

직접 계좌이체를 통해 후원하기를 원하시면 아래의 계좌로 후원
하실 수 있습니다.

* 서면으로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셔야만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문의 부탁드립니다.

<일시후원계좌>

라틴아메리카: KEB하나은행 630-007636-461

중앙아시아: 우리은행 1005-201-884969

중동(걸프 포함): 우리은행 1005-701-884976

아프리카: 우리은행 1005-901-884982

아시아: 우리은행 1005-901-884970

북한: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선교회후원: KB국민은행 029301-04-167093

희망의선물: 신한은행 100-027-453994

어린이&청소년 캠페인: KEB 하나은행 280-890028-03905

여성사역 캠페인: 신한은행 100-027-219169

*예금주 공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픈도어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 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목차

03 칼럼

- 이란교회의 부흥과 박해

04 비밀신자 이야기

- 두려움 없는 믿음을 지원해주세요

- 새로운 희망의 끈

- 비밀신자를 위한 기도

13 박해와 선교현장

- 이라크

22 Heart To Heart

- 오픈도어 기도학교 2025

- IDOP (국제기도의 날)

- 어린이 박해지도 세미나 후기

- 희망의 선물

- 부록 -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기도월력

이란교회의 부흥과 박해

김경복 선교사 (한국오픈도어 사무총장)

“이란교회에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보통 가족단위로, 3-4명씩 집단 회심이 일어나고 있는데, 얼마전에는 21명 일가족 전체가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5월 국제오픈도어 컨퍼런스에 갔다가 현지에서 온 사역자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이다. 일반적으로 이슬람권에 신자들이 꿈속에서 예수를 만나 회심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지만, 가족단위로 집단 회심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참으로 놀라운 간증이었다. 오랫동안 이란교회 성도들은 국가의 조직적인 탄압에 의해서 신앙을 은밀하게 비밀리에 간직해 왔다. 그리고, 국가 안전에 위협적인 세력으로 낙인 찍힌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제대로 된 재판도 받지 못하고, 테헤란 에빈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이 극적으로 종결되었다. 그러나, 이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요청은 붓물처럼 채도하고 있다. 그만큼 강도높은 국가의 통제와 탄압이 실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외부언론에 잘 보도되고 있지 않지만, 휴전이후 이란 내부에서는 국가안보라는 미명 하에 수감자들을 처형하며,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시민사회를 옥죄는 등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공포와 억압을 더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6월18일 인터넷을 전면 차단하면서 이란인들의 국제사회와의 연결을 차단하고 나섰다. 그 중심에 마즐레스(Majles, 의회)가 서둘러 통과시킨 9개 조항의 법안이 있다. 이 법안은 이스라엘이나 다른 적대국가와의 모든 접촉을 에프사드-펠-아르즈(efsad-fel-arz: 지상의 부정부패)로 재분류하고 사형을 기본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9개의 조항 중 이란 기독교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다. 1-3조에는 이스라엘과 미국에게 정보, 재정, 사이버, 또는 물류를 지원한 경우에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과 4조에 국가안보에 해를 끼치는 행위와 선전선동의 경우 10-15년 형을 구형한다고 적시했다. 이것은 언제든지 당국자의 판단에 따

라 이란 성도들을 수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제9조, 소급조항을 통해 법이 통과되기 전에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것은 이란 기독교인들에게 치명적인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자국민에게 점점 더 적대적인 정부로서 암울한 미래를 초래할 것이다. 또, 종교법을 명분으로 시민을 처형하고, 투옥하는 것은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이란교회에게 큰 시련이 되고 있다. 실제로 휴전 이후, 이란의 21개 도시에서 43명의 기독교인들이 체포되었다. 정확한 혐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정부의 강압 정책과 교회를 향한 박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행12:5)

위기의 순간, 고비 고비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간구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끊어지고, 결박에서 자유케 되는 기적을 경험했다.

이란의 한 성도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

"우리는 고통과 시련의 계절을 통해 주님을 더욱 친밀하게 알게 되었어요. 결국 사랑이 가장 큰 목소리이자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지금 많은 이란인들은 종교와 정치의 공허한 약속에 지쳐 있어요. 이 시기에 사랑과 희망, 구원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이란에 임재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오픈도어 기도용사들은 강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홀로 주님의 보좌로 나아간다. 전세계 박해 받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요청을 펼쳐놓고, 주님의 얼굴을 대면한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주여, 이란 에빈교도소의 성도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보시옵소서! 주여, 이란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없는 믿음을 지원해주세요



야신은 자신의 새로운 신앙을 비밀로 할 수 없었지만, 그 사실을 밝히면 모든 것이 위험해집니다. 이제 그는 이라크에서 예수님의 희망을 계속 전하기 위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야신*은 성경책을 집어 들고 가족에게 숨기려고 표지에 붙인 테이프를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는 손톱을 한쪽 모서리 밑으로 집어넣고 테이프를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야신이 모든 것을 걸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수년간 하나님을 찾던 이 무슬림 개종자는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자신의 신앙을 비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변화를 목격하고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제 야신은 가족들에게 숨겨둔 성경을 공개하기로 용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야신이 위험한 여정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었습니다. 야신이 살고 있는 이라크에서는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할 경우, 극심한 박해가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

야신은 무슬림 가정에서 자랐지만 종교에 대해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모스크에 갔을 때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습관이었습니다."라고 야신은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이 존재한다면 당신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제게 당신을 보여주세요.'라고 말했어요"

어느 날 밤, 야신은 강렬한 꿈을 꿔왔습니다. 아름답고 매력적인 한 남자가 야신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이 길이니 나를 따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신이시여,
존재하신다면 자신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야신은 마을의 한 기독교인에게 꿈의 의미를 물었고, 그 대답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야." 현지 목사가 야신과 함께 성경을 읽어주었고, 성경 말씀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아름다운 말씀 때문에 울었어요."라고 야신은 기억합니다.

위험한 장소

이라크는 세계에서 예수님을 따르기에 가장 위험한 20위 안에 드는 곳으로, 이슬람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극심한 박해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게 주인이자 두 아이의 아버지인 야신은 투옥과 폭력, 심지어 죽음까지

감수하며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신은 자신의 새로운 신앙을 비밀로 하려고 노력했지만 성령의 역사를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전에는 가족에게 폭력적이었는데, 복음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어 가족을 섬기기 시작하자 아내와 아이들이 왜 갑자기 그렇게 행동했냐고 물었어요."라고 야신은 말합니다.

야신은 용기를 내어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숨겨둔 성경을 공개하기까지 몇 달이 걸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공격과 위협

"어느 날 형이 저를 찾아왔어요."라고 야신이 말했습니다. "물라가 제가 성경을 배포하고 있으니 저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형은 저를 여러 번 죽이려고 했어요. 한 번은 제 코를 부러뜨렸어요. 또 한 번은 집에 화염병을 던졌어요."

*"이 세상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거할 곳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야신은 직장을 잃고 양치기로 저임금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협박 편지를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그와 대화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야신은 여전히 예수님을 따릅니다...

작년에 오픈도어 현지 사역자들의 지원으로 200명의 다른 이라크 신자들과 함께 집회에 참석하면서 그의 신앙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야신의 아내와 아이들은 기독교인이 되었고, 다른 마을 주민 두 명도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야신은 이라크에 희망을 전하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기도와 기부를 통해 야신의 두려움 없는 신앙을 지지하면 이라크에서 복음의 희망을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행 4:29)

여러분의 후원

오픈도어의 비전은 가장 위험한 곳에서 희망을 드러내는 기독교인들의 두려움 없는 신앙을 지원함으로써 남은 자들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로 성경을 제공하고, 생계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기독교인들에게 지속 가능한 수입을 제공하며, 제자 훈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야신은 외롭고 고립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라면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계속 예수님을 따르고 전할 것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라고 야신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저를 구속하기 위해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저는 그분을 부정하거나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없어질지라도, 제가 있을 곳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마을에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 번 떠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제 마음에 이곳에 남아 있기를 원하셨고, 저를 사용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안전을 위해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야신의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 휴대폰 카메라로 QR코드 스캔

신자들이 치열한 박해 속에서도 희망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어요?

후원해주세요

- **5만 원:** 비밀 신자 한 명이 다른 기독교인들과 만나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제자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 **8만 원:**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없는 나라에서 비밀 신자 두 명에게 성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2만 원:** 취약한 기독교인이 생계를 유지하며 장기적으로 재정이 안정되게 도울 수 있습니다.

후원 방법

한국오픈도어 자동이체

홈페이지 - 후원하기
- CMS 비밀신자



[자동이체 신청하기]

일시 후원 (한국오픈도어 계좌 입금)

우리은행 1005-701-884976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입금 시 입금자명에 '비밀신자'를 기록해 주세요.

한국오픈도어 문의

전화: 02-596-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카카오톡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기도해주세요

- 마을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야신과 그의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 야신의 아내와 아이들이 핍박 속에서도 보호받고 외롭지 않도록.
-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에서 기독교인으로서 희망을 드러내는 다른 용감한 신자들을 위해.

새로운 희망의 끈

아담과 디나*는 숨겨왔던 믿음이 발각되면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덕분에, 두 사람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고
그들의 믿음은 오히려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숨겨둔 성경책이 발견되면서, 아담과 디나*의 감춰왔던 믿음이 결국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의 지원은 생명줄과도 같았습니다.

이집트에 사는 젊은 부부 아담과 디나는 겉보기에는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택시 사업을 통해 성공을 거두었고, 부모님과 함께 화려한 저택에 살면서 안정된 삶과 평온한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디나의 오빠가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해주면서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담은 그때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때 우리는 빛을 발견했어요. 그의 간증은 우리 삶을 영원히 바꿔놓았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영적인 눈이 열려서 진리와 생명의 길을 알게 되었어요.”

부부는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지만, 가족들에게는 신앙을 비밀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제 아버지는 이맘(이슬람 성직자)이셨거든요. 가족들은 기독교인을 불신자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가족 중 누군가가 기독교인이 된다면,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요?”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의 믿음은 들통 나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디나의 방에서 성경이 발견되면서 모든 진실이 드러났고, 이에 가족들은 격분했습니다.

부부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며 자신들이 발견한 소망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용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불신자이자 배신자라고 부르셨어요. 그렇게 분노와 증오에 가득 찬 아버지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우리가 죽어 마땅하다고 말하며, 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하셨어요.” 아담은 슬프게 말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집과 생계, 친구들과 가족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라고 아담은 말했습니다.

새로운 기회

바로 그때 여러분이 실질적인 도움과 영적인 지지로 그들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 덕분에 오픈도어의 현지 사역자들은 아담과 디나에게 새로운 거처를 마련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생계를 꾸려 나가는 데 필요한 오토바이를 선물할 수 있었습니다. 부부는 제자 훈련 모임에 참여하며 믿음을 더욱 굳건히 세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아담은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여정을 함께할 안전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발견하게 되었죠.”

오늘날 아담과 디나는 여전히 비밀 신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심각한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미 가족에게 버림받은 이들 부부는 또다시 믿음이 발각될 경우, 새롭게 시작한 삶마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 덕분에 아담과 디나는 함께 믿음을 나누는 공동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위로와 지지를 받으며,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미래를 소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이름은 변경되었습니다.*



기도해주세요

- 아담과 디나가 두려움 없이 믿음 안에서 자라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 위험한 사회 속에서 비밀 신자로 살아가는 부부에게 은혜와 용기를 더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 이집트의 비밀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위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이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전 세계의 비밀신자들은 고립되고, 외면당하며, 끊임없는 위협 속에 살아갑니다. 그들은 드러나지 않게, 그림자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많은 이들이 잊혀진 존재처럼 느끼며, 깊은 외로움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기도는, 이 핏박받는 형제자매들에게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가족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름: 사이드(Saeid)*

지역: 아라비아 반도

프로필:

이슬람에서 개종한 비밀 가정 교회 리더

사이드는 놀라운 꿈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때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제 영혼에 빛을 비추신 것 같았어요.” 이후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때부터 당국의 함정수사와 검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삼엄한 감시 하에서 그는 조심스럽게 숨어 지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비밀리에 다른 이들을 제자 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드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매일매일이 아슬아슬한 균형의 연속이에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이를 겉으로 드러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러한 고독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저를 붙들어주십니다.”



이름: 마리암(Mariam)*

지역: 중동

프로필:

신앙 때문에 고국에서 추방당하고 자녀들과 생이별한 여성

마리암의 신앙이 발각되었을 때,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체포되어 감옥에 수감되었고, 결국 추방당했습니다. 네 명의 자녀들과 작별 하던 순간을 떠올릴 때, 눈물이 흐릅니다.

그럼에도 마리암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날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지금도 저와 함께 계세요. 아이들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박해 없이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이름: 비타(Bita)* 지역: 이란 프로필: 비밀 신자

비타는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고, 14살에 원치 않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삶이 절망스럽게 느껴지던 어느 날, 친구의 초대로 비밀 가정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을 때, 제 영혼 깊은 곳에서 무언가 깨어났어요.”

오늘날 비타는 비밀 가정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지만, 남편은 아내의 믿음을 모릅니다. 그녀는 여러분의 기도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밀 신자들을 위한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모든 비밀 신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어두운 세상에 소망의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야신, 사이드, 비타, 마리암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약속을 굳건히 신뢰하게 하시고 삶으로 이를 증거하게 하소서. 박해 가운데도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평안과 힘을 얻게 하소서. 예수님을 따를 용기를 새롭게 부여주소서. 무엇보다도, 이 박해받는 형제자매들을 보호해주소서.

비록 비밀신자로 살고 있지만, 그들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들의 삶이 다른 이들의 마음을 흔들어 진리를 갈망하게 하소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온 열방을 변화시키소서. 주님의 사랑과 소망으로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안전을 위해 이름은 변경되었습니다.

오픈도어 기도학교 2025

박해받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기도용사를 세웁니다!

기도학교의 목적

오픈도어의 핵심가치로 무장한 기도용사 30명을 세워 전 세계 고난받는 교회를 위한 지역 기도운동이 일어나도록 훈련합니다.

-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기도와 선교적 연대**
- 오픈도어 사역현장과 **선교전략의 깊은 이해**
- **브라더 앤드류**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의 부르심

모집 대상

오픈도어 기도운동에 헌신할 **기도용사 30명**

일정 안내

2025년 9월 9일 ~ 11월 25일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20분에서 9시 30분
(10월 7일, 11월 11일은 기도회 인도 실습 및 휴식)

날짜	핵심 주제	사역 이해
9월 9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다	One Million Prayer
9월 16일	우리는 박해받는 교회를 섬긴다	Arise Africa
9월 23일	우리는 성경의 사람이다	Deaf Community
9월 30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1)	Displaced People
10월 7일	추석 연휴 / 기도회 인도 실습 1	
10월 14일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다	Secret Believers
10월 21일	우리는 믿음으로 사역한다	Project Pearl
10월 28일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지상명령에 헌신한다	World Watch List
11월 4일	하나님의 밀수꾼 (2)	Persecuted Woman
11월 11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한다	SSTS / IPM / SED
11월 18일	휴식 / 기도회 인도 실습 2	
11월 25일	하나님의 부르심 (3)	오픈도어 선교전략 이해

장소 및 방식

- **장소:** 오픈도어선교회 사무실
(서울시 중랑구 봉우재로 133, 화성빌딩 201호)
- **방식:** 현장 참여 + 온라인 강의 병행
- **내용:** 강의 + 기도회 인도 실습 + 중보기도

등록비

5만원 (교재 및 실습자료 포함,
수익금은 박해지역 사역 후원에 사용됩니다)

문의 및 신청

- 이메일: odsk@oepnddoors.or.kr
- 전화: 02-596-3171
- 팩스: 02-594-3171
- 신청 마감: 선착순 30명!

QR코드를 통해
신청하기



"우리는 고난 받는 교회와 함께
기도하는 사명입니다."
지금, 기도의 여정을 시작하세요.

기독교 박해지수 World Watch List 2025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 현황

이라크 (IRAQ)

17위

폭력과 압박의 정도



* 6개 영역 박해 지수는 영역 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 별 총합은 100점이다 (6x16.7=100)

중요한 발견

이슬람국가(IS)가 영토를 상실한 이후, 이라크 기독교인들에게 가해지는 주요 압박의 원인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아파 민병대였다. 그러나 IS는 2023년까지도 민간인, 사회 기반 시설, 보안군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공격을 감행했다. 이란과 터키 역시 쿠르디스탄노동자당(PKK) 소속 인사들을 표적으로 한다는 명목 아래, 이라크 쿠르디스탄 지역(IKR)에 대한 공습을 계속해왔으며, 터키는 지상 작전도 병행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이러한 공격은 주로 기독교인이 거주하는 마을에도 영향을 미쳐, 민간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탈출하게 만들었다.

역사적 전통을 지닌 교회들(동방아시리아교회, 시리아정교회, 시리아가톨릭교회, 칼데아가톨릭교회, 아르메니아정교회)는 특히 이슬람 급진 무장단체와 비기독교계 지도자들로부터 폭력, 불관용, 차별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고 있다. 정부 당국으로부터도 차별을 겪고 있다. 바그다드와 바스라에 위치한 복음주의 교회들 역시 급진 이

슬람 단체와 비기독교 지도자들의 폭력 대상이 되고 있으며, 정부로부터 차별도 받고 있다. 무슬림 배경을 가진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가족으로부터 큰 압력을 받으며, 자신의 신앙을 비밀로 지키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상속 권이나 결혼할 권리 및 수단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다. 이슬람을 떠나는 일은 비교적 온건한 이슬람 지역인 쿠르디스탄 자치구(IKR) 내에서도 위험할 수 있다. 정교회에서 복음주의 교회로 옮기는 등 교단을 변경하는 경우, 종종 권리 박탈이라는 처벌을 받는다. 정교회와 가톨릭 교회의 지도자들이 복음주의 교회에 출석하는 신자들의 혼인을 거부하는 사례도 보고된 바 있다. 2024년, 이라크 대법원은 쿠르디스탄 자치정부(Kurdish Regional Government) 의회 내 기독교인 의석 할당을 6석에서 3석으로 줄이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는 기독교인의 정치적 대표성을 더욱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라크 (Iraq)

국가 정보

지도자 : 모하메드 시아 알수다니 총리

인구 : 46,524,000 명

기독교인 수 : 187,000 명¹

주요종교 : 이슬람교

정부형태 : 연방 의회 공화국



국가 상황

종교 상황	신자 수 (명)	비율 (%)
기독교인	187,000	0.4
무슬림	45,371,000	97.5
그 외 종교	648,630	1.4
불가지론자	223,000	0.5

출처²

2003년 미국 주도의 침공 이후 사담 후세인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권력 공백이 발생하면서, 수니파와 시아파 무슬림 간의 종파 갈등이 격화되었고, 기독교인들은 그 충돌 속에 휘말렸다. 이로 인해 난민들이 대거 이라크를 떠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흐름은 2014

년 6월 이슬람국가(IS)가 자칭 칼리프 국가를 수립하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2016년 IS 점령 지역 상당 부분이 탈환된 이후, 기독교인들은 모술 인근의 카라코시(Qaraqosh) 등 과거에 기독교인이 다수를 이루던 해방된 도시들로 서서히 귀환하기 시작했다. 2017년 12월, 당시 총리는 IS가 이라크 영토에서 완전히 축출되었다고 선언했다. 2024년 첫 세 분기 동안에는 IS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공격이 보고되지 않았다.

이라크는 크게 두 지역으로 나뉜다. 북부에는 반(半)자치적인 쿠르디스탄 지역(이라크 쿠르디스탄 지역, IKR)이 있으며, 이 지역은 공식적으로 에르빌(Erbil)에 기반을 둔 쿠르드자치정부(KRG)가 통치한다. 나머지 광범위한 아랍 지역은 바그다드에 본부를 둔 이

라크 중앙정부가 통제하고 있다. 이라크는 총 19개의 주(지방/거버노레이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공식적으로 기독교인 인구가 등록된 주는 단 5곳—니네베(Nineveh), 에르빌(Erbil), 슬레이마니아(Sulaymaniyah), 도후크(Dohuk), 북부 키르쿠크(Kirkuk)—뿐이다. 이 외의 모든 주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떠났으며, 무슬림 배경을 가진 개종자 소수만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이라크 기독교인의 다수는 칼데아 가톨릭교회(Chaldean Catholics) 소속이며, 이는 로마 가톨릭교회의 동방 전례 교단 중 하나이다. 약 20%는 동방 아시리아 교회(Assyrian Church of the East) 소속이다. 이라크에서 대부분의 기독교인이 거주하는 쿠르디스탄 자치지역(IKR)에는 약 2,000명의 복음주의 교회 등록 신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IS(이슬람국가)의 영토 패배 이후, 이라크 기독교인들이 받는 주요 압력의 원천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아파 민병대였다. 이러한 이란의 대리 세력들은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발발한 이후, 이라크 내 미군 관련 시설에 대한 공격을 크게 확대했다. 한편 쿠르디스탄 지역에서는 터키가 쿠르드노동자당(PKK) 소속 인사들을 표적이라 주장하며 군사 작전을 계속해오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독교인이 다수를 이루는 마을들 역시 공격을 받았다. 터키의 이 지역 내 군사 작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중단 없이 이어졌으며, 그로 인해 광범위한 주민 이주가 발생했고, 많은 기독교인들의 귀환이 막히고 있다.

2005년 제정된 이라크 헌법은 이슬람을 국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적용되는 이슬람 법에 의하면, 무슬림이 종교를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금지되어 있으며, 무슬림으로 등록된 여성은 비무슬림과의 결혼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복잡한 가족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2024년 6월에는 이라크 쿠르디스탄 자치정부(KRG) 내 한 법원이, 기독교 신앙으로 성장한 여성과 그녀의 자녀들에게 이슬람으로의 개종을 명령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이 사건은 여성의 어머니가 기독교인 남편과 이혼 후 무슬림 남성과 재혼하면서 이슬람으로 개종했던 과거에 기인한 것이었

다. 이와 같은 법적·사회적 상황은 이라크 내 일부 기독교 가정의 직면하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공식 문서상 종교 정체성은 개인과 가족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기독교인의 정치적 대표성은 매우 낮아 전체의 약 1.5%에 불과하다. 2024년, 이라크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쿠르디스탄 자치정부(KRG) 의회 내 종교 및 소수 민족을 위한 할당 의석 수는 11석에서 5석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이라크 쿠르디스탄 지역(IKR) 의회 내 기독교인을 위한 의석도 기존의 6석에서 3석으로 축소되었다.

지역 별로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

이라크의 대부분 기독교인은 북부 쿠르디스탄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이라크 중부에 위치한 바그다드와 남부의 바스라에는 현재 소수의 기독교인만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특히 중부 및 남부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은 매우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다.

기독교인들은 대부분의 주(省)를 떠났으며, 무슬림 배경에서 개종한 소수 집단만이 일부 지역에 남아 있다. 개종자에 대한 박해는 주로 이슬람 및 씨족 중심의 억압 형태로 나타나며, 이러한 인권 침해는 쿠르드 지역보다 아랍 지역에서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누가 영향을 받는가?

해외거주 기독교인 공동체들

이 범주는 세계감시목록(WWL) 점수 및 분석에 포함되지 않는다.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들

아시리아 정교회, 칼데아 가톨릭교회, 시리아 가톨릭교회, 아르메니아 교회 등은 모두 급진 이슬람 운동과 비기독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침해 행위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이들은 또한 정부 당국으로부터도 차별을 받고 있다. 이라크 중부와 남부 지역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십자가와 같은 기독교 상징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검문소, 대학교, 직장, 정부 건물 등에서 괴롭힘이나 차별을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¹ Zurlo G A 및 Johnson T M, 편집자, 세계 기독교 데이터베이스, 라이덴 / 보스턴: Brill, 2024년 5월 접속

² 그 외에는 중국 민족, 신종교, 시크교, 정령교, 도교, 유교, 자이나교, 신도교, 조로아스터교 등이 있습니다.
데이터 출처: Zurlo G A와 Johnson T M, 편집자, 세계 기독교 데이터베이스, 라이덴/보스턴: Brill, 2024년 5월 접속

기독교 개종자들

이 범주는 무슬림 배경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혹은 전통적인 기독교 교단 출신이지만 현재는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에서 예배하는 이들을 포함한다. 이슬람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은 주로 가족이나 친척 등 가족으로부터 가장 큰 압력을 받으며, 새로운 신앙을 비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신앙이 드러날 경우, 가족, 부족 지도자, 지역 사회로부터 위협을 받을 위험이 크다. 정교회에서 복음주의 교회 등으로 교단을 바꾸는 경우에도 권리 박탈이나 고용 상실 등의 처벌을 받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박해와 차별의 주요 원인

이슬람 억압

이라크의 기독교인들은 수니파와 시아파 무슬림 모두로부터 민족에 상관없이(쿠르드족, 이란계, 아랍계 포함) 이슬람으로 부터 억압을 받고 있다. 이슬람 무장세력의 영향력은 이라크 전역, 심지어 쿠르디스탄 자치구(IKR)에서도 이슬람 의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는 새로운 요인이 되었다. 여러 시아파 정당들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무슬림 배경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은 특히 이란 국경 인접 지역에서 이란 비밀정보기관의 감시를 받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일상생활은 이슬람 교리와 담론에 지배되고 있으며, 이슬람 지도자들(특히 시아파)은 여전히 사회·종교·정치 전반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무슬림 배경의 기독교인들은 가족들로부터 이슬람으로의 재개종을 강요받으며, 때로는 살해 위협까지 받기도 한다. 여성에 대한 사회적 통제도 점점 심화되고 있으며, 바그다드와 바스라에 거주하는 기독교 여성들조차 외출 시 신체를 가리는 복장을 강요받고 있다. 과거에는 무슬림 시민들이 IS에 협력하거나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민병대에 가담한 사례도 있었으며, 대표적으로 모술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 이러한 경험은 기독교인들이 공동체 내 이웃과 주민들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이라크 전역의 일반 시민들조차 무슬림 배경의 기독교인들에게 이슬람으로 돌아가도록 압박을 가하는 경우가 계속되고 있다.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

바그다드와 바스라에 있는 복음주의, 침례교, 오순절 교회는 급진 이슬람 단체와 비기독교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과 탄압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정부 당국의 차별도 경험하고 있다.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기독교인들은 이라크 중부 및 남부 지역에서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 무슬림 대상 선교 활동을 했다는 의심을 받을 경우, 신성모독법이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도 있다. 복음주의 공동체의 경우, 성경학교 설립이나 해외 기독교 단체의 지원을 위한 조직 등록 등과 관련된 법적 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씨족 억압

이라크 사회는 여전히 씨족 중심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과거 IS가 점령했던 지역처럼 종파 갈등으로 혼란을 겪은 지역일수록 그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씨족주의가 이슬람과 결합될 경우, 무슬림 배경의 기독교인들에게 특히 큰 영향을 미친다. 민족 및 씨족 집단은 때때로 배타적 성향을 가진 정당을 결성하기도 하며, 기독교인은 손쉬운 공격 대상이 된다. 씨족 사회에서는 정부의 법보다 전통적인 관습과 규범을 따르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며, 씨족은 사실상 법 위의 존재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다.

독재적 편집증

이라크 중앙정부는 역대 정권 모두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권력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여왔으며, 그 결과 종교 소수자들이 환영받는 다원적 사회의 실현은 번번이 실패해왔다. 쿠르디스탄 자치구(IKR)에 거주하는 기독교인들은 2018년 총선 당시 선거법이 악용되었다고 주장하며 불만을 제기했다. 당시 쿠르드 및 시아파 정당들이 기독교인에게 할당된 국가위원회(National Council)의 5개 쿼터 의석을 차지했으며, 기독교 정당이 선출하지 않은 후보들을 기독교 대표로 내세웠다는 것이다. 또한, 모든 행정 수준의 정부 관계자들이 기독교인들을 위협하고 해외 이주를 '권유'하는 행태도 보고되고 있다.

조직적 부패와 범죄

이라크 전역에는 만연한 부패가 존재하며, 기독교인들도 이러한 구조 속에서 착취당하고 있다. 이슬람 다수 지역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주택을 시장가의 60% 수준에만 팔 수 있는 경우가 흔하다. 기독교인 소유의 토지가 몰수되었으며, 이라크를 탈출한 기독교인들이 남긴 부동산의 최소 70%가 불법적으로 조직 범죄 집단에 의해 점거되었다는 보고도 있다. 특히 바그다드에서 이러한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기독교 교단 간 보호주의

이라크에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기독교 교단이 14개 존재한다. 새로운 교단이 등록을 신청할 경우, 기존의 공

인 교회들이 승인 절차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비전통적인 개신교 교단의 등록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역사적 전통을 가진 교회들은 종종 소속 신자들이 신교 교회 공동체를 방문하는 것을 막으려 한다.

이라크 중부와 남부 지역에서는, 전통 교회 출신의 기독교인이 비전통적 교회 공동체로 옮길 경우, 가족, 씨족 지도자, 지역 사회로부터 위협과 반대에 직면할 수 있다. 역사적 교회 소속의 주교들이 복음주의 교회를 출석하는 신자들의 혼인을 집례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사례도 보고되어 있다.

남성과 여성이 받는 영향은 어떻게 다른가?

여성

IS(이슬람국가)와의 전쟁 기간 동안 종교 소수 여성들이 겪은 잔혹한 피해 이후, 여성들은 여전히 성별 기반 폭력의 위협에 놓여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기독교 여성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히잡이나 베일을 착용하는데, 베일을 쓰지 않은 여성은 괴롭힘을 당하거나 심한 경우 돌팔매질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인에 대한 범죄—납치, 강간, 성적 학대—는 전반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분위기 속에 방치되어 있다. 이슬람에서 개종한 여성들은 가택연금, 구타, 성희롱, 심지어 '명예살인'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미혼 개종 여성은 강제로 결혼을 강요당할 수 있으며, 남성 기독교인과의 법적 결혼도 불가능하다. 또한 일부 기독교 여성들은 무슬림 남성에게 유인되어 이후 괴롭힘을 당하거나 강제로 결혼을 요구받는 사례도 보고된다.

여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박해형태:

- 기독교인 배우자와의 법적 결혼이 거부됨
- 종교적 복장 강요
- 강제 이혼
- 강제 결혼
- 가족에 의한 감금(가택연금)
- 계획적인 유혹을 통한 접근
- 폭력 - 살해 / 신체적 / 심리적 / 성적 / 언어적



남성

기독교인들은 종종 취업에 어려움을 겪으며, 직장에서 착취당하기 쉬운 환경에 놓여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많은 경우 남성이 가족의 주된 생계부양자이기 때문에 일 자리를 잃는 것은 가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무슬림 배경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은 더욱 심각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명예를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이들은 가족으로부터 추방당하거나, 협박을 받거나, 심지어 살해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이미 강한 이민 동기를 더욱 자극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교회를 더욱 약화시키는 요소로는, 대부분 남성인 사제들과 기독교 지도자들이 구금, 납치, 살해의 위협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 있다. 이러한 위협은 특히 니네베 평원 지역에서 두드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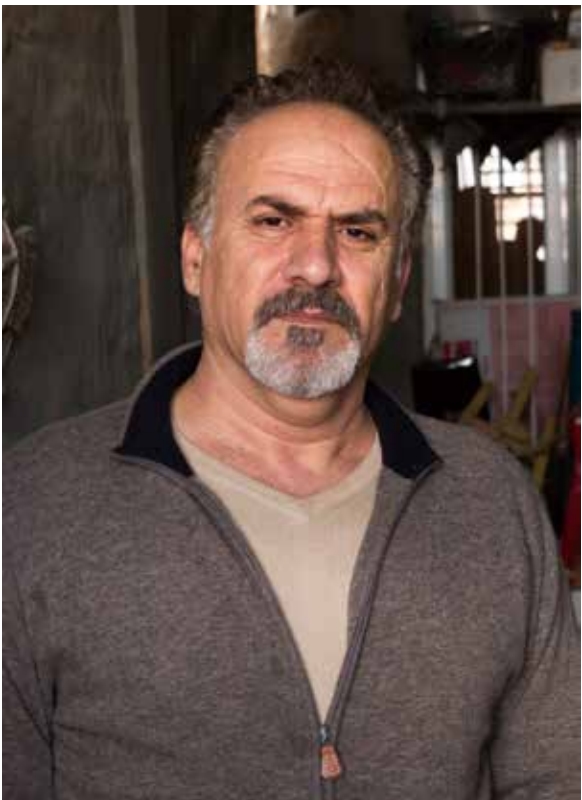
남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박해형태:

- 사업, 직업, 고용기회에 대한 경제적 괴롭힘
- 정부에 의한 구금
- 폭력 - 살해 / 심리적

월드와치리스트 5년 동향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 순위	100점 만점에서 반올림한 박해점수
2025	17	78
2024	16	79
2023	18	76
2022	14	78
2021	11	82

WWL 2024에서 79점이었던 전체 점수가 78점으로 하락한 이유는, 폭력 점수가 7.8점에서 6.7점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는 작년에 4명의 기독교인이 살해된 것과 달리 올해는 1명만이 살해된 데 따른 변화다. 그러나 여전히 폭력 수준은 매우 높은 편으로, 터키의 공격으로 교회 2곳이 파손되고 여러 명의 기독교인이 구금되었다. 평균 박해 점수는 여전히 극단적인 수준인 14.3점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광범위한 부패와 실질적인 보호의 부재는 기독교 공동체의 권리와 지위를 계속해서 약화시키고 있다.



보고 기간 동안의 폭력 사례들

- **2024년 6월**, 터키의 공격으로 인해 이라크 북부에 위치한 교회 두 곳이 피해를 입었다. 이 중 한 곳은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다른 한 곳은 경미한 손상을 입는 데 그쳤다.
- 보고 기간 중, 신앙과 관련된 이유로 무슬림 배경의 기독교 개종자가 가족 구성원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살해당한 기독교인	교회가 공격당한 사건 수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당한 기독교인	기독교인 사유 재산이 파손되거나 압류된 사건 수
2025	1	2	40	10*
2024	4	1	35	10*

이 표에는 보고 기간 동안 신앙 기반 폭력의 몇 가지 범주만 포함되어 있으며, 전체 결과는 해당 국가의 WWL 박해 동향의 폭력 섹션을 참조하라. 많은 사건이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숫자는 최소한의 수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정확하게 세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상징적인 정수(10, 100 또는 1000)가 표시되며, 실제로는 훨씬 더 높을 수 있다. 동일한 원칙이 상징적인 숫자인 10,000, 100,000* 및 1,000,000*에도 적용된다.

개인 영역

무슬림 배경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은 자신의 신앙을 공개하거나 다른 기독교인들과 모임을 가질 경우 위협에 처할 수 있다. 이들은 배교와 반역 혐의로 비난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인이 비기독교인에게 자신의 신앙에 대해 이야기할 경우, 개종 권유혐의를 받거나 괴롭힘 및 폭력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다. 토착 기독교인들은 일반적으로 기독교 상징물을 착용하거나 드러낼 수 있지만, 매우 보수적인 이슬람 공동체에 거주할 경우 예외이다.

가족 영역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여성은 공식적으로 기독교인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비무슬림 남성과의 법적 결혼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 문제는 IS 무장세력에 의해 강제로 이슬람으로 개종당한 사람들—현재 무슬림으로 간주되는 기독교인 포함—에 의해 더욱 심화되었다. 이들은 법원에 출석하여 이슬람 개종을 선언해야 했고, 이후 모든 법적, 사회적 기록이 변경되었다. 2015년 제정된 국가 신분증법 제26조에 따르면, 부모 중 한 명이 무슬림이면 자녀는 무조건 무슬림으로 등록된다. 이는 무슬림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해 태어난 자녀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혼 시 자녀의 양육권은 무슬림 부모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무슬림으로 간주된 아동은 이슬람 종교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법적으로 모든 학교(기독교 학교 포함)는 정기적인 이슬람 수업과 시험을 제공해야 한다. 이 시험에서 불합격할 경우 학년 진급이 불가능하다.

공동체 영역

바그다드, 바스라, 심지어 북부 지역에서도 기독교 여성들은 머리를 가리도록 압력을 받는다. 기독교인 대학생들은 일부 무슬림 교수들이 의도적으로 기독교 축일에 시험을 치르도록 일정을 잡는다고 불만을 제기해왔다. 아시리아계 학교들은 자신들이 차별받고 있으며, 정당하게 받아야 할 정부 지원금을 전액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라크의 교육은 이슬람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정부 학교 및 대학교의 공식 교육 과정에서는 기독교인을 불신자이자 적으로 규정하고, 그들에 대한 지하드(성전)를 선동하는 내용

을 포함하고 있다. 국가 신분증 온라인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종교 정보를 요구하며, 신분증 내 전자 칩에도 종교 정보가 여전히 기록되어 있다. 이로 인해 취업 과정에서 기독교인이 차별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기독교인들이 국가 의회나 정부 내 고위직을 일부 맡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대표성이 매우 낮다. 무슬림 배경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은 자신의 신앙이 밝혀지는 즉시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국가 영역

이라크 헌법에 따르면, 이라크는 이슬람 국가이며, 이슬람에 반하는 법률은 제정될 수 없다. 이슬람으로의 개종은 법적으로 허용되지만, 이슬람에서 다른 종교나 신앙으로 개종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허용되지 않는다. 이라크의 가정법에 따르면, 부부 중 한 명이 무슬림일 경우 이혼, 자녀 양육권, 상속권은 거의 자동적으로 무슬림 배우자에게 귀속된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인은 군대와 같은 특정 기관에서 최고위직에 오르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승진을 위해 이슬람으로 개종하라는 압박을 받는 경우도 있다. 기독교인들은 정기적으로 온라인, 국영 방송, 그리고 급진 이슬람 단체들에 의해 비방 캠페인의 표적이 되고 있다.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대부분은 처벌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니네베 평원 지역에서는 중앙정부가 민병대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어 이 같은 무책임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기독교인들이 이라크를 떠나며 남긴 부동산 중 약 78%가 불법적으로 점유되었으나, 이에 대해 법적 처벌을 받은 사례는 거의 없다.

교회 영역

청소년 사역은 교회 건물 내부에서만 허용된다. 이슬람 배경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이 지역 교회에 통합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이는 이라크 쿠르디스탄 지역(IKR)의 일부 쿠르드계 교회를 제외하고는 예외 없이 적용된다. 이들은 보안상의 이유로 고향을 떠나 익명성이 보장되는 대도시로 이주하거나, 아예 국외로 탈출하는 경우가 많다. 교회에 대한 감시 활동은 주로 신흥 교단들에서 보고되고 있다.

국제적 의무 및 권리에 대한 위반

이라크는 다음 국제 조약에 따라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기로 약속했다: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CPR)
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ESCR)
3.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반대하는 협약 (CAT)
4. 모든 형태의 여성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5.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CRC)

이라크는 다음과 같은 기독교인의 권리를 규칙적으로 침해하거나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새로운 신앙을 이유로 살해당하고 있다 (ICCPR 제6조)
- 현행 법은 이슬람에서 다른 종교로의 개종을 금지하고 있다 (ICCPR 제18조)
-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자녀 양육권과 상속권을 박탈당한다 (ICCPR 제26조)
-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의 자녀는 무슬림으로 등록되며, 이슬람 교육을 강제로 받아야 한다 (ICCPR 제18조 및 CRC 제14조)
- 기독교 여성 개종자들은 무슬림 남성과 강제로 결혼당하고 있다 (ICCPR 제23조; CEDAW 제16조 및 ICESCR 제10조)



이라크의 다른 종교 소수자들의 상황

이라크에서 박해, 차별, 불관용을 겪는 다른 종교 소수 집단으로는 야지디(Yezidi), 수니파(Sunni), 카카이(Kakai), 사비아-만다이교(Sabaeen-Mandaeans), 바하이(Bahai), 조로아스터교(Zoroastrians), 유대인(Jews) 등이 있다. 특히 야지디 공동체는 IS에 의해 극심한 학살과 잔혹 행위를 겪었으며, 피해 규모는 기독교인을 상회한다. 더 많은 야지디 여성과 소녀들이 성노예로 끌려갔으며, 더 많은 야지디 민간인들이 살해되었다. 2021년 3월 통과된 야지디 생존자 법(Yezidi Survivors Law)은 피해 생존자들에게 보상과 재할을 포함한 특별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만, 그 완전한 이행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중동연구소(Middle East Institute)는 2023년 7월 5일자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2023년 4월, 야지디들은 증오 발언과 허위 비방 캠페인의 표적이 되었으며, 여기에는 IS가 저지른 범죄를 정당화하는 발언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같은 증오 발언은, 신자르(Sinjar) 지역에서 IS 연루 혐의가 있는 가족들의 귀환에 반대하는 평화 시위 중 야지디들이 이슬람 사원을 불태웠다는 허위 주장 이후 급속히 퍼졌다.”

수니파 공동체 역시 인권 침해 사례를 보고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정부 계열 시아파 민병대에 의한 강제 추방과 탈바트당화(de-Baathification) 과정에서의 차별 등이 포함된다.

이라크 헌법은 기독교인, 야지디, 사비아-만다이교도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그 외의 종교인이나 무신론자에 대한 보호 조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바하이교는 법적으로 금지된 종교이며, 신앙 활동이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이 법은 이라크 쿠르디스탄 지역(IKR)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지역에서는 바하이교가 공식 종교로 인정되고 있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도 이 법이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는 드물다. 유대인들 역시 제한을 받고 있으며, 정부 기관이나 군 복무에 참여할 수 없어 공공 부문 취업에서의 배제와 전반적인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공공연히 드러내는 것을 꺼리고 있다.

오픈도어의 이라크 사역

오픈도어는 현지 파트너 및 교회들과 협력하여 이라크 교회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 현장 동행 사역(Presence ministry)
- 훈련 프로그램 (트라우마 회복 훈련, 성경 교육, 교회 지도자 및 무슬림 배경 신자 대상 훈련 포함)
- 성경 및 기독교 문서 배포, 쿠르드어 번역 지원
-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사업 (국내 실향민(IDPs)을 위한 소액 대출 등)
- 교회 건물 수리 및 장비 지원, 교회 활동 등 구조적 지원
- 위기 구호 (이라크 북부 지역 주택 및 교회 재건 등)
- 기도 사역



2025년 11월 2일, 박해 받는 교회를 위한 국제기도의 날(IDOP)에 초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 시편46:1 -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재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무너졌습니다. 또한 곳곳에서 홍수와 산불, 지진과 전염병이 발생하여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현실은 전 세계 3억 8천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살인과 폭력, 차별과 따돌림, 납치와 성폭행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전 세계 기독교인 7명 중 1명이 박해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환난의 날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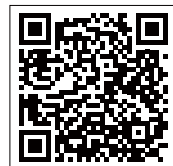
1996년 세계복음주의연맹(WEA)은 매년 11월 첫째 주를 박해 받는 교회를 위한 국제기도의 날(IDOP: International Day of Prayer for the Persecuted Church)로 정했습니다. 전 세계 교회가 마음을 모아 박해 받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로 한 것입니다. 국제기도의 날은 올해로 어느덧 30번째를 맞고 있습니다. 오픈도어는 이 기도운동을 함께 하는 중요한 파트

너입니다. 오픈도어 설립자인 브라더 앤드류(Brother Andrew)는 1997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세계복음주의연맹 총회에서 박해 받는 형제자매들을 섬긴 것을 인정 받아 종교자유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는 수상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연설했습니다. “저희는 박해 받는 형제자매들을 위해 전 세계 교회가 기도하도록 독려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로 그들의 고난에 함께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놀라운 일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2025년 11월 2일 국제기도의 날에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참가 안내는 한국오픈도어 홈페이지 (opendoors.or.kr)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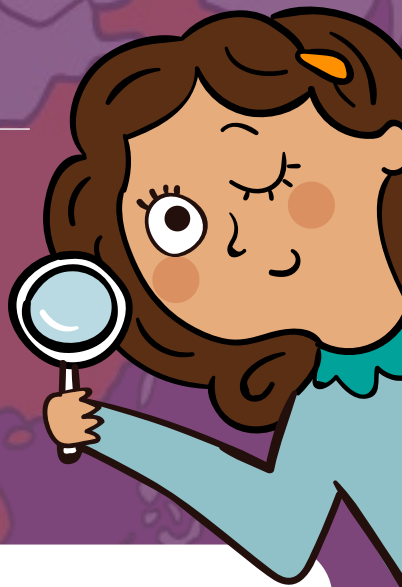
문의: 02-596-3171, 임훈희간사



어린이 박해지도 세미나 후기

"아이들과 함께 기도여행을 떠나보아요"

어린이 박해지도 세미나



지난 7월 3일, 유초등부 사역자 및 교사, 관심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박해지도 세미나'가 줌 온라인에서 10명의 참가자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어린이 박해지도'와 '기도여권'을 소개하고 이를 가정과 교회 교육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자리였습니다.

세미나는 오픈도어 사역 소개, 자료 활용법 안내, 활용 사례 발표, 참여자 간 의견 나눔 등의 순서로 약 1시간 40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주일학교, 가정 예배, 여름성경학교 등 다양한 상황에서 기도여권과 어린이 박해지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소개되었고

참석자분들도 자신이 속한 사역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세미나의 마지막 순서로는 최근 발생한 박해 사례를 나누고 피해를 입은 형제자매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어린이 박해지도 세미나에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픈도어는 앞으로도 다음 세대가 세계 교회의 고통에 공감하고, 기도로 함께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사역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참가자 후기

세미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아이들 선교교육에 잘 사용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성경학교와 연관된 프로그램에 활용하려고 합니다. 가능하시면 저금통도 보내주시면 함께 교육하겠습니다.

- 최재원

아이들과 기도선교사 활동 시간에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번 학기에 오픈도어 선교회를 만나서 구체적으로 아이들과 기도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번엔 신청하는 기도여권과 박해지도는 가을학기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오픈도어 선교회, 기도제목 게시판을 만들어 저도 오픈도어선교회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 정창미





오직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한

나의 희망의 선물



성경전달/훈련

- 선물1. 박해지역 성경전달 - 오디오/디지털 성경포함 (7000원~)
- 선물2. 박해지역 제자훈련 - SSTs세미나 등 (30,000원~)
- 선물3. 박해지역 목회자훈련/컨퍼런스 (30,000원~)



생계지원

- 선물4. 이슬람 박해지역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40,000원~)
- 선물5. 탈북자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40,000원~)
- 선물6. 박해지역 수입창출 프로젝트 지원 (50,000원~)



여성, 어린이 케어

- 선물7.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트라우마 치료, 지원 (50,000원~)
- 선물8.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교육과 생계지원 (50,000원~)
- 선물9. 박해피해 어린이 주일학교, 캠프지원 (30,000원~)



난민/투옥자/파괴된 교회 지원

- 선물10. 박해로 인한 크리스천난민 구호, 지원 (60,000원~)
- 선물11. 박해피해 크리스천 법률지원 (60,000원~)
- 선물12. 박해공격으로 파괴된 교회 보수/건축 (120,000원~)

참여안내 "후원자님이 지정하신 대로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됩니다."

일시 후원 또는 정기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1. 일시 후원

- 후원 항목을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세요 (다중 선택가능)
- 총 선물 금액을 오픈도어 '희망의 선물' 계좌로 송금해 주세요.
신한은행 100-027-453994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 전화, 휴대폰, 이메일, 카카오톡 채널 중 하나로 신청내역을 알려주세요.

2. 정기 후원(매월 자동이체)

아래 내용을 작성하신 후 사진을 찍어서 편하신 방법으로 보내주세요.

휴대폰: 010-7548-3171 메일: odsk@opendoors.or.kr 카카오톡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선물번호:	이름(예금주):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출금 은행 및 계좌번호:	
출금액:	출금일 선택: ☐ 5일 ☐ 25일	출금동의서명:

*연말정산시 기부금영수증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민번호 13자리를 꼭 기입해주세요.